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ISSN 2093-311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http://iit.kita.net)



# TRADE FOCUS

2019년 5호

## 품목별 對인도 수출경쟁력 및 수출애로요인 분석

2019년 3월

전략시장연구실 조의윤 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 CONTENTS

[요 약]	i
I. 연구배경 및 목적	01
II. 인도 수입구조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03
III. 비교우위지수 및 수출경합도지수 분석	11
IV. 수출 애로요인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5
V.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및 결론	36

보고서 내용 문의처

전략시장연구실 조의윤 연구원 (02-6000-5263, jjoy1227@kita.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044-414-1252, leejm@kiep.go.kr)



## 요 약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는 新남방정책의 핵심대상국이다. 한-인도 교역은 2011년 206억 달러를 돌파하기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후의 양국 간 교역은 한동안 정체되었다. 정체가 지속되는 동안 인도와 중국 간 교역은 급속도로 확대됐다. 2000년대 초 우리나라와 중국이 인도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으나, 2017년 우리나라는 3.6%, 중국은 16.2%를 기록했다.

2017년 기준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가 대인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9%, 70.7%, 16.5%, 11.5%를 기록했다. 인도 수출은 미진하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품목들은 합성 고무 제품, 금속가공 기계, 전동기·발전기, 자동차 부품, 가구 및 부분품 등으로 향후 대인도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우위지수 및 수출경합도지수를 통해 유망품목군의 수출경쟁력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전자기기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 플라스틱은 일-인도 CEPA, 자동차 및 부품은 인도 정부의 생산 현지화 정책, 철강·유기화학품은 비관세 장벽이 각각의 수출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

<품목별 수출경쟁력 악화 요인>

품목	수출경쟁력 악화 요인
• 전자기기	• 중국기업의 시장 점유
• 기계류, 정밀기기	• 기술 경쟁 심화
•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 일-인도 CEPA
• 자동차 및 부품	• 인도 정부의 자국 내 생산 촉진
• 철강, 유기화학품, 고무 및 관련제품	• 비관세장벽

대인도 수출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지수분석 결과를 보완하였다. 수출애로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 해당품목의 수요감소, 환율변동을 꼽는 기업이 많았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기업자체 생산성 하락, 현지시장 발굴 한계 등이 지적되었다.

<품목별 수출 애로 설문 응답>

품목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 기계류	• 과당경쟁(43.1%) • 수요감소(19.0%)	• 현지시장 발굴 한계(27.6%) • 기업자체 생산성 하락(25.9%)
• 전자기기	• 과당경쟁(47.8%) • 수요감소(26.1%)	• 기업자체 생산성 하락(43.5%) • 현지시장 발굴 한계(21.7%)
• 화학 • 플라스틱	• 과당경쟁(50.0%) • 환율변동(13.6%)	• 현지시장 발굴 한계(27.3%) • 인도 외 신규수출 시장 발굴(22.7%)
• 철강 • 철강제품	• 과당경쟁(38.1%) • 환율변동(14.3%)	• 현지시장 발굴 한계(38.1%) • 현지생산 증가로 수출 비중감소(23.8%)
• 자동차부품 • 정밀기계	• 과당경쟁(36.0%) • 수요감소(16.0%)	• 인도 외 신규수출 시장 발굴(32.0%) • 현지생산 증가로 수출 비중감소(28.0%)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약화요인에 대한 품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기계·전자기기는 인도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디 정부는 산업화와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어, 이를 통해 유발되는 다양한 진출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미양허 대상 품목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CEPA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 철강·유기화학품·고무는 양국 간 대화채널의 정례화를 통한 비관세 장벽 해결이 주요 선결과제이다.

# 본 문



# I. 연구 배경 및 목적

- 신남방 정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외경제 정책으로 인도와 아세안을 핵심 대상국으로 함
  - 2017년 기준 인도의 국민총생산 순위는 세계 6위이며, 최근 3년간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6%대 이상을 꾸준히 기록
- 한·인도 교역은 2011년 206억 달러를 돌파하기까지 급속히 증가했으나 이후의 양국 간 교역은 정체
  -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수출입은 감소 추세를 보임
    - 2017년 교역규모가 2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추세적이라고 판단 하기는 어려움<sup>1)</sup>

<한국의 대인도 수출 추이>

연도	수출금액(천 달러)	수출증가율(%)	총수출 비중(%)	수출대상국 순위
2005	4,597,837	26.6	1.6	11
2006	5,532,797	20.3	1.7	10
2007	6,600,039	19.3	1.8	11
2008	8,977,063	36.0	2.1	10
2009	8,013,290	-10.7	2.2	9
2010	11,434,596	42.7	2.5	7
2011	12,654,078	10.7	2.3	9
2012	11,922,037	-5.8	2.2	9
2013	11,375,792	-4.6	2.0	9
2014	12,782,490	12.4	2.2	8
2015	12,029,587	-5.9	2.3	7
2016	11,596,286	-3.6	2.3	8
2017	15,055,543	29.8	2.6	7
2018(10월)	13,103,400	2.5	2.6	7

자료 :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DB

1) 2017년 인도 GST 도입으로 금세공품(HS 7114)에 대해 부과되던 12.5%의 상계관세가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인도 금세공품 수출이 전년대비 1294.3% 증가함. 인도정부는 금 관련제품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떨어짐

- 양국 간의 교역이 정체되는 동안 중국의 대인도 수출은 급속도로 확대
  - 2000년대 초 우리나라와 중국이 인도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7년 우리나라는 3.6%, 중국은 16.2%를 기록

<인도의 상위 10대 수입국>

(단위 : %)

순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벨기에	6.1	중국	7.2	중국	11.8	중국	15.8	중국	17.0	중국	16.2
2	영국	6.0	미국	5.9	UAE	8.8	사우디	5.5	미국	5.7	미국	5.4
3	미국	5.4	스위스	5.0	스위스	6.3	스위스	5.4	UAE	5.4	UAE	5.2
4	스위스	5.3	독일	3.9	사우디	5.8	미국	5.2	사우디	5.2	사우디	4.7
5	일본	4.2	벨기에	3.7	미국	5.5	UAE	5.2	스위스	4.2	스위스	4.6
6	독일	3.4	UAE	3.6	호주	3.4	인도네시아	3.6	한국	3.4	인도네시아	3.7
7	사우디	3.0	호주	3.5	독일	3.3	한국	3.3	인도네시아	3.4	한국	3.6
8	중국	2.8	한국	3.1	이란	3.2	독일	3.0	독일	3.2	이라크	3.4
9	싱가포르	2.6	영국	3.1	나이지리아	2.9	이라크	2.9	이라크	2.8	호주	3.2
10	남아공	2.6	일본	2.6	한국	2.8	나이지리아	2.6	일본	2.7	독일	2.9
이하	(16) 한국	1.5	-	-	-	-	-	-	-	-	-	-

자료 : WITS, UN Comtrade

-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2030년까지의 교역목표를 500억 달러로 발표
  - 목표액의 원만한 달성과 인도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 양국 교역의 정체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
  - 본보고서는 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지수분석, 설문 및 현지조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수출기업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과 애로요인을 품목별로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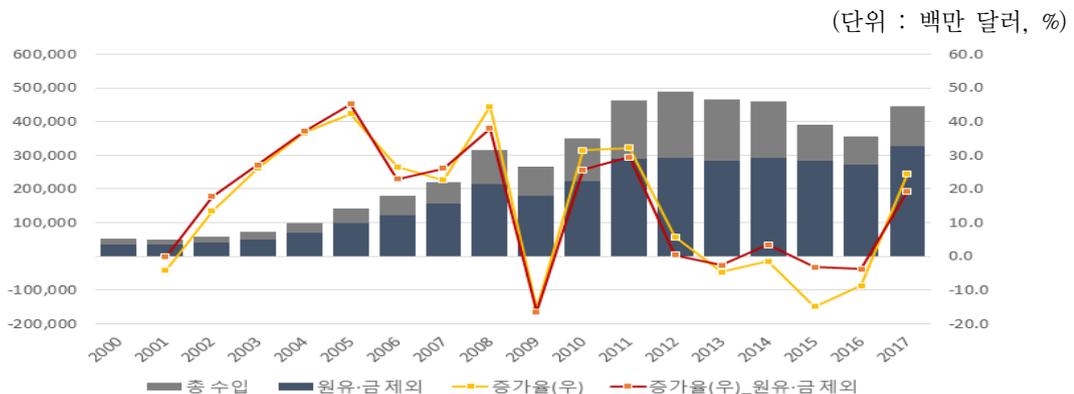
## II. 인도 수입구조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 인도의 대세계 주요 수입 품목: 광물성연료, 귀금속, 전자기기, 기계류 등
- 한국의 대인도 수출 상위 품목: 전자기기, 철강, 기계류, 플라스틱 등
- 수출 확대 잠재력이 높은 품목(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부진, 반면 대세계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 합성 고무 제품, 금속가공 기계, 전동기·발전기, 자동차 부품, 가구 및 부분품

### 1. 인도의 수입구조 특징

- 2017년, 인도의 대세계 총수입은 4,440억 달러를 기록
  - 총수입에서 원유(HS 270900)의 비중은 연평균 25.3%(2000~17년 기준)에 달함
  - 원유(HS 270900)와 비(非)가공 금(HS 710812)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독일과 함께 인도의 상위 5대 수입국에 위치

<인도 수입 추이>



주 : 원유(HS 270900)와 비가공 금(HS 710812)을 제거함. 증가율은 명목 기준  
 자료 : WITS

<인도의 상위 10대 수입국-원유·금 제외>

(단위 : %)

순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벨기에	9.6	중국	10.2	중국	18.3	중국	21.7	중국	22.1	중국	22.1
2	미국	8.5	미국	8.3	미국	8.0	미국	6.3	미국	7.0	미국	6.6
3	일본	6.6	독일	5.5	독일	5.1	인도네시아	4.9	한국	4.4	인도네시아	4.9
4	독일	5.4	벨기에	5.2	한국	4.4	한국	4.6	인도네시아	4.4	한국	4.9
5	중국	4.4	한국	4.4	인도네시아	4.3	독일	4.2	독일	4.2	호주	4.2
6	싱가포르	4.2	호주	4.0	일본	3.7	일본	3.4	일본	3.6	독일	3.9
7	말레이시아	3.5	스위스	3.9	벨기에	3.3	벨기에	2.9	호주	3.1	일본	3.2
8	호주	3.1	일본	3.7	홍콩	3.3	호주	2.9	벨기에	2.7	홍콩	3.2
9	인도네시아	2.9	싱가포르	3.2	호주	3.2	말레이시아	2.9	말레이시아	2.5	말레이시아	2.2
10	홍콩	2.7	인도네시아	3.0	싱가포르	3.2	카타르	2.9	홍콩	2.5	싱가포르	2.2
이하	(11) 한국	2.4	-	-	-	-	-	-	-	-	-	-

주 : HS 710812와 HS 270900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임  
 자료 : WITS, UN Comtrade

■ 인도의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성연료, 귀금속, 전자기기, 기계류,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철강 등임

- 인도의 생활수준 향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전자기기는 수입품목 순위 3~4위를 꾸준히 유지하며 수입비중을 늘려옴

<인도의 수입 상위 5개 품목 금액(비중)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
1	27	19,342 (36.5)	27	46,322 (32.9)	27	110,841 (31.7)	27	104,646 (26.8)	27	89,309 (25.0)	27	123,108 (27.7)	11.5
2	71	9,937 (18.8)	71	23,323 (16.6)	71	68,630 (19.6)	71	59,633 (15.3)	71	48,130 (13.5)	71	74,307 (16.7)	12.6
3	84	4,216 (8.0)	84	12,877 (9.1)	84	28,090 (8.0)	85	35,522 (9.1)	85	36,660 (10.4)	85	46,557 (10.5)	18.3
4	85	2,692 (5.1)	85	11,073 (7.9)	85	25,209 (7.2)	84	32,406 (8.3)	84	32,660 (9.2)	84	36,163 (8.1)	13.5
5	29	1,595 (3.0)	72	5,310 (3.8)	29	12,116 (3.5)	29	15,918 (4.1)	29	14,767 (4.1)	29	17,966 (4.0)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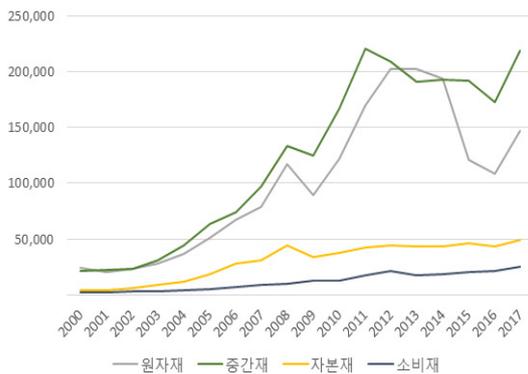
※ [27]광물성연료, 광물유,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29]유기화학품 [71]진주, (반)귀석, 귀금속 등  
 [72]철강 [84]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부분품 [85]전자기기 및 부분품

주 : HS 99(기타)는 순위에서 제외함. \*2000~17년 기준  
 자료 : W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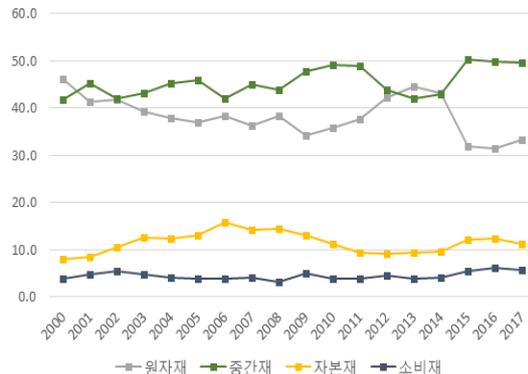
■ 인도의 총 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중간재이며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순으로 뒤를 이음

● 2017년 기준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비중은 각각 33.4%와 49.7%, 자본재는 11.2%, 소비재는 5.7%를 기록

<가공단계별 수입금액 변화>



<가공단계별 수입비중 변화>



자료 : WITS

## 2.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

■ 2000년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0.8%에 불과했던 대인도 수출은 2017년 2.6%까지 확대

● 2000년대 초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인도 수출액은 10여년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섬

-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 내수증가, 정부의 개방적 교역정책 추진 등으로 대인도 수출 증가

● 한·인도 교역은 2011년 206억 달러를 돌파하기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후 양국 간 교역은 한동안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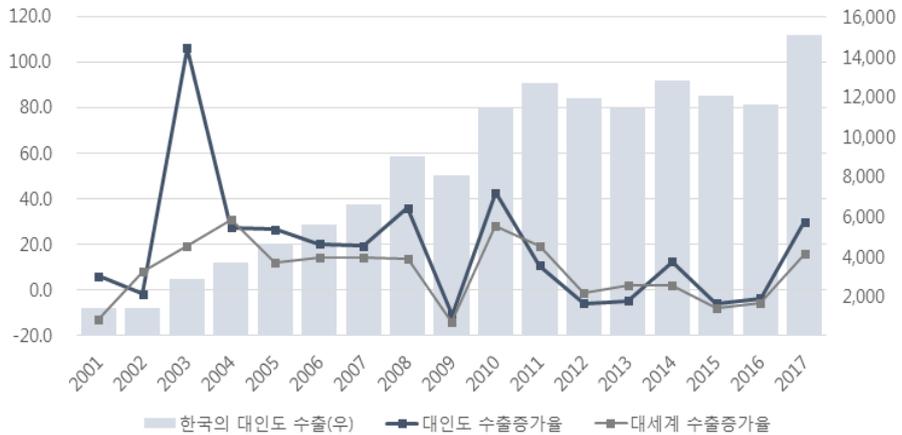
● 2017년에는 대인도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29.8%를 기록했는데,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의 총수출 증가율인 15.8%를 훨씬 웃도는 수치

- 대인도 수출이 처음으로 150억 달러를 돌파했고, 전체 수출 중 인도의 비중은 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금세공품<sup>2)</sup>(HS 7114), 무선전화기와 송수신기기(HS 8517, 이하 무선통신기기) 등임

<한국의 대인도 및 대세계 수출증가율 비교>

(단위 : %, 백만 달러)



자료 : UN Comtrade

- 인도는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나 수출 비중은 3% 미만에 그침

<한국의 상위 10대 수출국>

(단위 : %)

순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21.8	중국	21.8	중국	25.1	중국	26.0	중국	25.1	중국	24.8
2	일본	11.9	미국	14.5	미국	10.7	미국	13.3	미국	13.4	미국	12.0
3	중국	10.7	일본	8.4	일본	6.0	홍콩	5.8	홍콩	6.6	베트남	8.3
4	홍콩	6.2	홍콩	5.5	홍콩	5.4	베트남	5.3	베트남	6.6	홍콩	6.8
5	대만	4.7	대만	3.8	싱가포르	3.3	일본	4.9	일본	4.9	일본	4.7
6	싱가포르	3.3	독일	3.6	대만	3.2	싱가포르	2.8	싱가포르	2.5	호주	3.5
7	영국	3.1	싱가포르	2.6	인도	2.5	인도	2.3	대만	2.5	인도	2.6
8	독일	3.0	영국	1.9	독일	2.3	대만	2.3	인도	2.3	대만	2.6
9	말레이시아	2.0	인도네시아	1.8	베트남	2.1	멕시코	2.1	멕시코	2.0	싱가포르	2.0
10	인도네시아	2.0	말레이시아	1.6	인도네시아	1.9	호주	2.1	말레이시아	1.6	멕시코	1.9
이하	(25) 인도	0.8	(11) 인도	1.6								

자료 : 한국무역협회 DB

2) 금세공품 수출증가는 한시적으로 발생. 각주 1) 참고(1p)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상위 품목은 전자기기, 철강, 기계류, 귀금속,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차량 및 부분·부속품 등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상위 10개 품목과 비교해 보면, 대인도 수출에서는 기계류, 철강, 플라스틱 품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철강은 대세계 수출비중이 3.9%인 반면 대인도 수출비중은 11.0%에 달함

<한국의 대세계 수출 품목과 대인도 수출 품목 비교(2017년)>

(단위 : %)

순위	주요 대세계 수출 품목		주요 대인도 수출 품목	
	(HS 코드) 품목명	수출비중	(HS 코드) 품목명	수출비중
1	(85) 전자기기 및 부분품	28.4	(85) 전자기기 및 부분품	20.5
2	(84) 기계류	12.1	(84) 기계류	13.4
3	(87) 자동차부품	10.8	(72) 철강	11.0
4	(89) 선박 및 수상구조물	7.1	(87) 자동차부품	9.9
5	(27) 광물성연료	6.3	(39)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9.3
6	(39)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5.5	(29) 유기화학품	6.2
7	(90) 정밀기기	5.1	(27) 광물성연료	5.0
8	(29) 유기화학품	4.0	(40) 고무 및 관련제품	4.3
9	(72) 철강	3.9	(71) 귀금속	2.5
10	(73) 철강 제품	2.3	(90) 정밀기기	2.5
소계	-	85.5	-	84.7
이하	(71) 귀금속	0.7	(73) 철강 제품	1.6
	(40) 고무 및 관련제품	0.3	(89) 선박 및 수상구조물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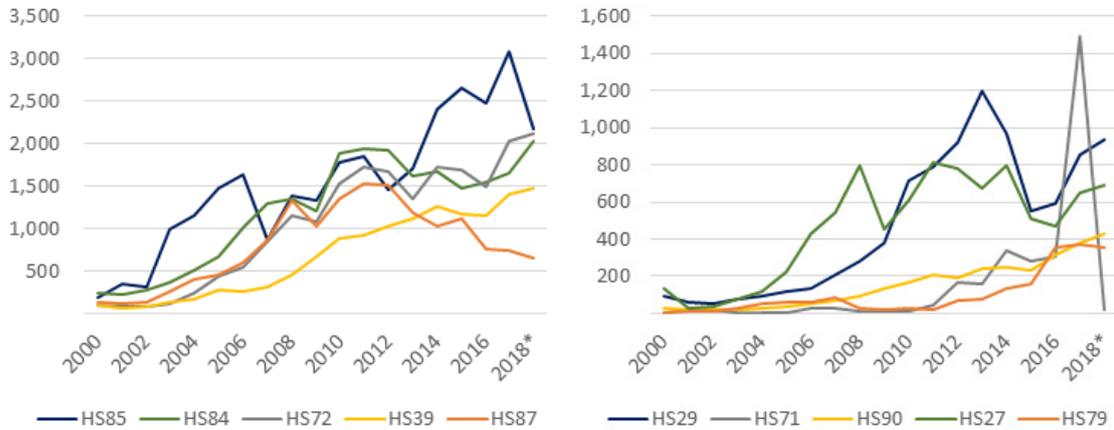
주 : HS 코드 2007년 기준

자료 : WITS

● 2000-2017년까지 대인도 전체 수출이 연평균 15.4% 증가하는 동안 철강, 전자기기, 플라스틱, 정밀기기는 각각 18.1% 20.1%, 17.5%, 16.9% 증가

### <한국의 대인도 수출 상위 10개 품목 금액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주 : \*1~10월. [85]전자기기 및 부분품, [84]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부분품, [72]철강, [39]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87]철도/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품과 부속품, [29]유기화학품, [71]진주, (반)귀석, 귀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90]광학기기, 사진/영화용기기, 측정/검사/정밀/의료용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27]광물성연료, 광물유,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79]아연 및 관련제품

자료 : WITS, 한국무역협회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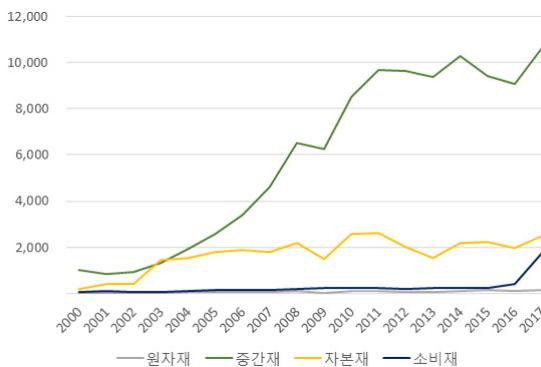
### ■ 2017년 기준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가 대인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9%, 70.7%, 16.5%, 11.5%를 기록

- 중간재 비중은 2003년 급격히 확대되면서 2013년 82.6%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꾸준하게 전체 대인도 수출의 70~80%를 차지

- 우리나라의 대세계 중간재 수출 비중인 65.8%(2017년)을 큰 폭으로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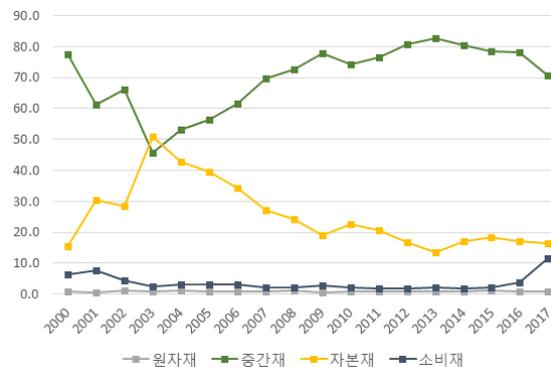
#### <가공단계별 대인도 수출금액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가공단계별 대인도 수출비중 변화>

(단위 : %)



자료 : WITS

### 3. 인도 수입구조와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비교

- 인도의 수입수요가 높은 품목을 한국의 대인도 수출증가율, 대인도 수출 비중 정도에 따라 4가지 형태로 분류 가능

<대인도 수출 증가율 및 비중에 따른 분류>

구분	인도 수입증가율 < 대인도 수출증가율	인도 수입증가율 > 대인도 수출증가율
주력 품목 (대인도 수출 비중 ≥ 0.3%)	2907 3907 3920 4810 7106 7204* 7210 7219 7225 7801 8207 8409 8431 8481 8483 8517 8536 8538 8542 9018 9031 9032	2902 3824 3901 3902 3904 4002* 4801 8414* 8415* 8462* 8479* 8480 8501* 8504* 8528* 8529* 8544* 8708*
	A	B
비주력 품목 (대인도 수출 비중 < 0.3%)	2814 2916 2922 2933 3004 3102 3206 3808 3815 3926 4016 7113 7202 7318 7601 7602 8413 8421 8443 8482 8507 8518 8525 8543 8803 9022 9027	C
	D	1701* 2704* 2711 2713 2809* 2905 2914 2915 2921* 2941* 3002* 4001* 4011* 4707* 7103* 7326 7404* 7408* 8407* 8411* 8426* 8445* 8471* 8473* 8477* 8523* 8541 8714* 9403*

주1 : HS 4단위, 2010~17년 누계 기준

주2 : \*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증가율 < 한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 품목으로 수출증가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A군) 대인도 수출증가율이 인도의 수입증가율 보다 높으면서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
  - 철강(HS 7204, 7210, 7219, 7225), 기계류(엔진 부품-HS 8409, 크레인·불도저 등 기계 부분품-HS 8431 등), 전자기기(무선통신기기-HS 8517, 전 회로 기기 및 커넥터-HS 8536, 8538, 전자집적회로-HS 8542), 정밀기 기(의료기기-HS 9018) 등이 해당
- (B군) 대인도 주력 수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수입수요에 비해 수출이 미진한 품목
  - 플라스틱 중합체(HS 3901, 3902, 3904), 합성고무 제품(HS 4002), 일부 기계류(기체펌프-HS 8414, 공기조절기-HS 8415, 금속가공 기계-HS 8462, 금속 주형틀-HS 8480 등), 일부 전자기기(전동기·발전기-HS 8501, 변압기·변환기-HS 8504, 모니터·프로젝터 및 TV 수신기기-HS 8528, 8529, 절연 전선 케이블-HS 8544), 자동차 부분품(HS 8708) 해당

- (D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증가율이 대세계 수출증가율보다 낮은 품목들은 대체로 D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가 대인도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세계 시장을 상대로는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들로, 향후 인도 시장에서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차량용 가솔린엔진(HS 8407), 방적준비기계(HS 8445), 자동자료처리기계(HS 8471), 사무용 기계 부분·부속품(HS 8473), 고무 플라스틱 가공·제조기계(HS 8477), 가구 및 부분품(의자 제외, HS 9403) 해당

### Ⅲ. 비교우위지수 및 수출경합도지수 분석

- 우리나라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 9개\*에 대해 ① 비교우위지수 ② 수출경합도지수를 통해 **수출경쟁력 악화 요인 분석**

\* 전자기기(85), 기계류(84), 철강(72), 자동차 및 부품(87),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39), 유기화학품(29), 고무 및 관련 제품(40), 광물유와 이들의 물질(27), 정밀기기(90) 등

- **분석 결과, 각 품목별 수출경쟁력 악화 요인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품목	수출경쟁력 악화 요인
전자기기	중국기업의 시장 점유
기계류, 정밀기기	기술 경쟁 심화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일-인도 CEPA
자동차 및 부품	인도 정부의 자국 내 생산 촉진
철강, 유기화학품, 고무 및 관련제품	비관세장벽

#### 1. 분석범위 및 방법

- (분석범위) 본 장에서는 대인도 주요 수출 품목 10개(HS 2단위) 가운데 귀금속(71)을 제외한 9개 품목에 대한 비교우위지수 및 수출경합도지수를 분석
  - 전자기기(85), 기계류(84), 철강(72), 자동차 및 부품(87),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39), 유기화학품(29), 고무 및 관련 제품(40), 광물유와 이들의 물질 (27), 정밀기기(90) 등이 해당
- (분석방법) 시장비교 우위지수(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수출 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등을 활용
  - (시장비교우위지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에 대한 특정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알려주는 지표
    - MCA는 세계수출시장이 아닌 특정 수출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비교 분석 한다는 점이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다름
    - MCA가 1보다 크면 해당품목이 자국의 전체 수출 품목 대비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며, MCA가 클수록 해당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해석

$$MCA_{kj}^i = \frac{X_{kj}^i / X_{kj}}{M_{jw}^i / M_{jw}}$$

$X_{kj}^i$ : k국가 i품목의 j국가에 대한 수출액

$X_{kj}$ : k국가의 j국가에 대한 총수출액

$M_{jw}^i$ : j국가 i품목에 대한 대세계 수입액

$M_{jw}$ : j국가의 총수입액

- (수출경합도지수) 두 국가 간 수출구조의 유사 정도를 측정하여 경합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양국의 경쟁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 ESI는 a 국가와 b 국가가 특정시장으로 수출하는 금액 중 각 상품(i)이 차지하는 비중의 최소값을 더한 수치로 정의
  - ESI 값이 “1”에 가까울수록 a와 b국가의 수출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수출구조가 상이함

$$ESI = \sum_{i=1}^n \min\left(\frac{X_{i,a}}{X_a}, \frac{X_{i,b}}{X_b}\right)$$

$\frac{X_{i,a}}{X_a}$ : a국의 특정시장에 대한 총수출에서 i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frac{X_{i,b}}{X_b}$ : b국의 특정시장에 대한 총수출에서 i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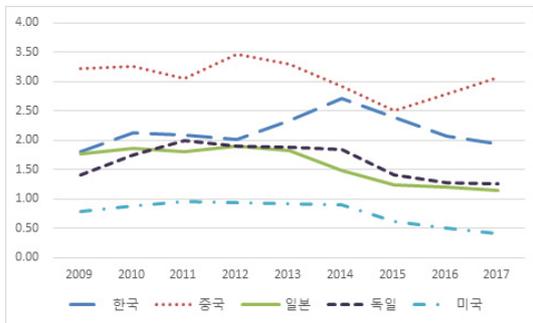
## 2. 품목별 분석

### ■ 전자기기(HS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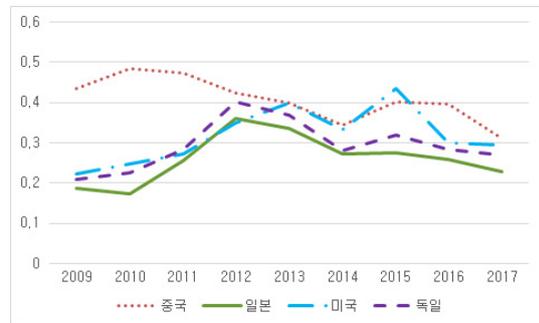
- 2009년 1.81이던 우리나라의 대인도 MCA는 2014년 2.71까지 상승했으나 2017년 1.94까지 하락
  - 일본, 독일, 미국의 MCA는 2014년을 전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2015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

- 한국은 대인도 전자기기 수출시장에서 중국과 가장 높은 경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뒤이어 미국, 독일, 일본 순으로 경합
  - 전선과 같이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 하면서 중국과의 경합도는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임
  - 미국, 독일, 일본과의 경합도는 2010년 대비 상승하였는데, 품질 중심의 수출 품목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

<주요국의 전자기기 MCA 추이>



<주요국과의 전자기기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 UM Comtrade

- 세부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8542)의 대인도 MCA는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의 세계 경쟁력 강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임
  -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인도의 반도체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4%에 불과했으나 한국의 대인도 반도체 수출은 연평균 39.2% 증가

<한국의 주요 전자기기 수출경쟁력 변화 (HS 4단위, 2010 vs 2017)>

품목	세계시장경쟁력 (RCA 지수 <sup>3)</sup> )			인도시장경쟁력 (MCA 지수)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8517	2.85	0.94	-	2.02	2.07	+
8542	3.54	4.72	+	2.02	8.30	+
8537	0.61	0.74	+	5.05	6.21	+
8536	0.59	0.81	+	0.79	2.59	+
8544	1.11	0.73	-	7.24	3.37	-
8529	4.94	4.43	-	5.61	1.78	-
8534	2.65	3.55	+	0.47	4.07	+
8538	0.94	2.23	+	1.07	2.27	+
8511	0.54	0.83	+	3.31	5.27	+
8501	0.43	0.67	+	2.10	2.03	-

주 1 : 전화기 및 송수신기기(8517), 집적회로(8542),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기타의 기반(8537),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8536) 절연 전선·케이블(8544), 제8525~8528호 관련 부분품(8529), 인쇄회로(8534), 제8535~8537호 관련 부분품(8538), 접화용 전자기기(8511), 전동기와 발전기(8501)

주 2 : 2017년 기준 수출금액이 높은 순으로 품목 배열 (이하 동일)

자료 : UN Comtrade

## ■ 기계류(HS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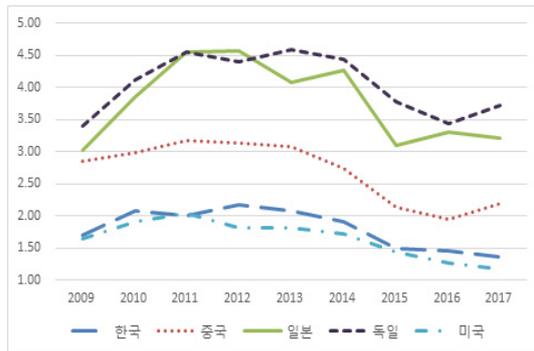
- 기계류에 대한 한국의 대인도 MCA는 2012년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
  - 중국, 일본, 독일, 미국 등 인도 주요수입국의 MCA 또한 한국과 비슷한 추이를 보임
- 인도시장 내 일본, 미국, 독일과의 경합도는 점차 상승
  - 2017년 기준, 일본과는 0.5에 근접하는 높은 경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 미국, 중국 순으로 경합
  -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과의 경쟁 보다는 일본, 독일 등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sup>4)</sup>

3) 현시비교우위지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에 대한 세계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알려주는 지표로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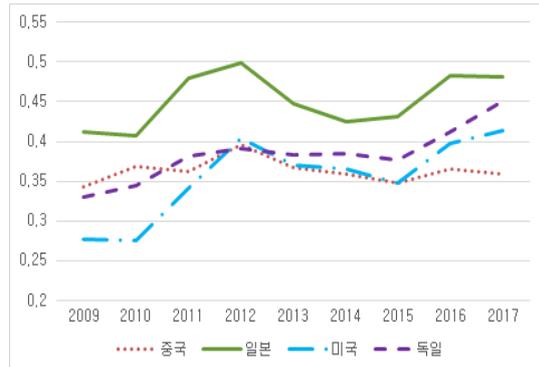
4) 박광순, 이진면, 전해진(2012.12)은 독일과 일본은 기계류의 중간재 및 자본재 품목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질보다 양 위주의 기계 산업 성장으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품목 위주로 기술적으로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자료: 박광순, 이진면, 전해진(2012.12),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전략적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 엔진부분품(8409), 밸브(8481), 베어링(8483), 원심분리기(8421)의 경쟁력 증가는 한·인도 CEPA 양허 혜택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sup>5)</sup>
- 금속주조용 주형틀(8480),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8479), 후드(8414) 등은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악화

<주요국의 기계류 MCA 추이>



<주요국과의 기계류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 UM Comtrade

<한국의 주요 기계류 수출경쟁력 변화 (HS 4단위, 2010 vs 2017)>

품목	세계시장경쟁력 (RCA 지수)			인도시장경쟁력 (MCA 지수)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8431	1.50	1.24	-	3.33	5.20	+
8480	2.79	2.79	+	10.61	7.05	-
8479	2.05	2.14	+	6.04	2.49	-
8409	0.64	1.11	+	1.78	3.43	+
8414	0.84	1.10	+	2.50	2.03	-
8481	0.54	0.65	+	1.20	1.89	+
8429	2.41	2.19	-	6.13	6.34	+
8483	0.63	0.75	+	0.65	1.97	+
8466	0.76	0.89	+	2.18	3.56	+
8421	0.52	0.67	+	0.98	1.68	+

주 : 8425~8430의 부분품(8431), 금속주조용 주형틀(8480),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8479), 엔진 부분품(8409) 진공펌프, 후드(8414), 밸브(8481), 불도저 등 건설기계(8429), 베어링(8483), 8456~8465의 부분품(8466), 원심분리기(8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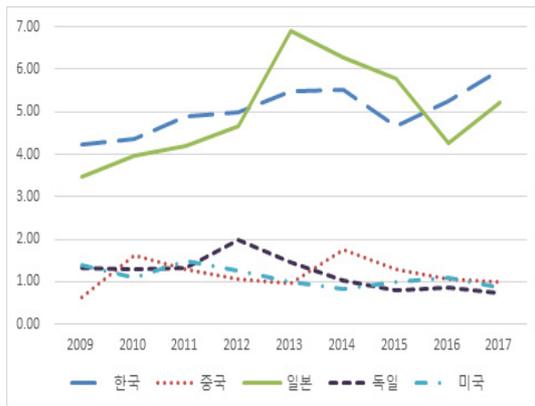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5) 8409, 8483, 8421의 경우 미양허 품목과 민감품목(RED, SEN), E-5, E-8이 혼재되어 있으며, 8466은 민감품목(RED), E-0, E-5, E-8 이 혼재, 8481은 수출비중이 크지 않은 2개 품목(848120, 848130 RED) 제외 E-5 또는 E-8의 CEPA 혜택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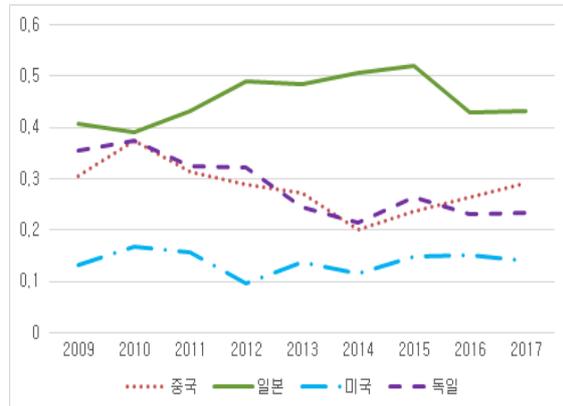
## ■ 철강(HS 72)

- 철강 수입시장에서의 우리나라 MCA 지수는 경쟁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MCA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도 철강시장 수출경합도를 보면 일본과의 경합관계가 가장 큼
  - 특히 일·인도 CEPA가 발효된 2011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경합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며 0.5를 돌파했으며, 2015년 이후 다소 낮아짐

<주요국의 철강 MCA 추이>



<주요국과의 철강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 UM Comtrade

- 열간압연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08),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25)과 같은 주요 철강 수출품의 대인도 시장경쟁력은 증가세에 있으며, 점유율 또한 확대되고 있음

<한국의 주요 철강 수출경쟁력 변화(HS 4단위, 2010 vs 2017)>

품목	세계시장경쟁력(RCA 지수)			인도시장경쟁력(MCA 지수)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7208	2.78	2.92	+	6.61	16.64	+
7210	3.31	3.43	+	8.64	11.05	+
7225	0.98	1.61	+	2.65	6.35	+
7209	4.76	4.00	-	13.40	13.13	-
7204	0.45	0.30	-	1.02	1.03	+
7219	2.52	2.10	-	4.65	4.48	-
7202	0.63	0.67	+	0.98	1.26	+
7207	0.83	0.50	-	0.00	5.21	+
7220	1.50	2.68	+	5.38	4.34	-
7221	2.18	2.27	+	0.05	10.32	+

주 : 열간압연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08),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10),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25), 냉간압연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09),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7204),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7219), 합금철(7202),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7207), 스테인리스강 폭 600mm 미만 평판압연제품(7220)

자료 : UN Comtrade

- 스테인리스강 폭 600mm 미만 평판압연제품(7220)의 경쟁력 약화에는 인도의 비관세조치(반덤핑)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HS 722020 품목의 대인도 수출은 반덤핑 조치 종료 이후 급증<sup>6)</sup>

<인도의 대한민국 철강 비관세 조치>

제소일	조치 시작일	조치 종료일	조치	상품 분류	HS코드
2010-08-16	2012-10-04	2017-10-03	반덤핑	Stainless Steel Cold Rolled Flat products 400 series having width below 600mm	722020
2016-04-11	2017-05-11		반덤핑	Hot roll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in coils of a width up to 2100mm and thickness up to 25mm and Hot roll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not in coils of a width up to 4950mm and thickness up to 150mm	7208, 7211, 7225, 7226
2016-04-19	2017-05-12		반덤핑	Cold rolled/cold reduced flat steel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of all widths and thickness, not clad, plated or coated	7209, 7211, 7225, 7226

자료 : WTO i-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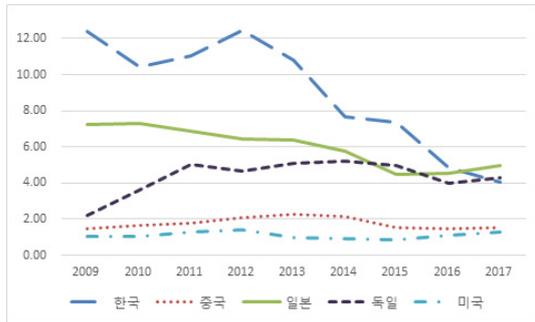
■ 자동차 및 부품(HS 87)

- 2012년 12.46을 기록한 한국의 대인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MCA는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경쟁력이 빠르게 악화
  - 일본의 경우 MCA가 하락세에 있었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독일의 MCA는 일본과 반대로 움직임
- 인도 자동차산업의 현지화 정책으로 자동차 품목의 대인도 수출 경합도는 상승하는 추세
  - 관세조치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일부 한정된 부품만 수입에 의존하면서, 각국의 대인도 수출 품목이 유사해지고 있음<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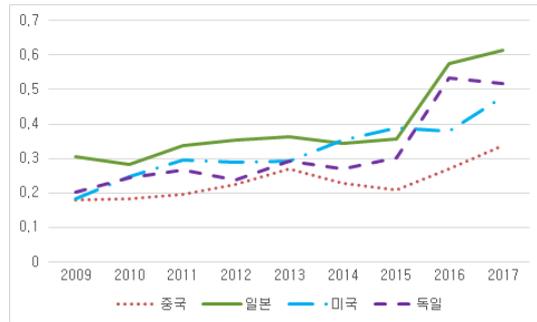
6) 2017년 10월 반덤핑 조치 종료 이후, HS 722020 품목 수출은 11월 전년동월 대비 193.2%, 12월 207.0% 증가

7) 독일 럭셔리 자동차 업체들도 인도 현지 부품조달을 확대하는 추세로 BMW는 과거 20~30%에 불과했던 인도 부

<주요국의 자동차 및 부품 MC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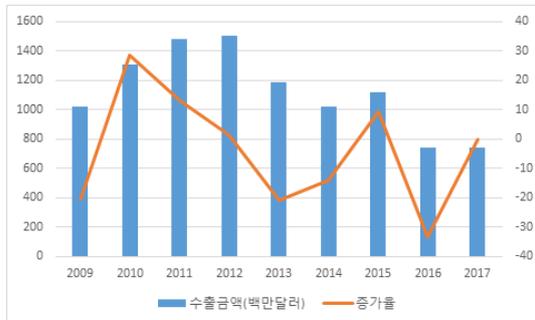
<주요국과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경합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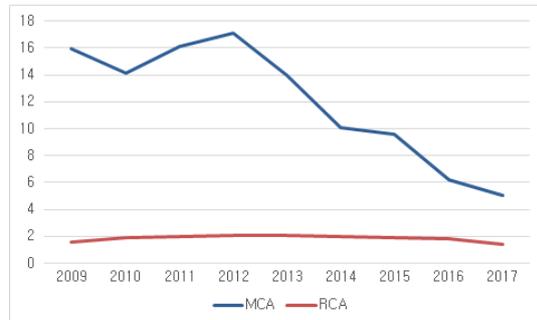
자료 : UM Comtrade

-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8708)의 대세계 경쟁력(RCA)은 큰 변화가 없으나 인도시장에서의 경쟁력(MCA)은 감소세를 보임
  -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Make in India' 정책 아래, 모디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8708)의 대부분은 한·인도 CEPA의 양허에서 제외되어, 동 품목 수출업체는 15%의 관세를 부담<sup>8)</sup>

<한국의 자동차부품(8708)수출 추이>



<한국의 자동차부품(8708) MCA, RC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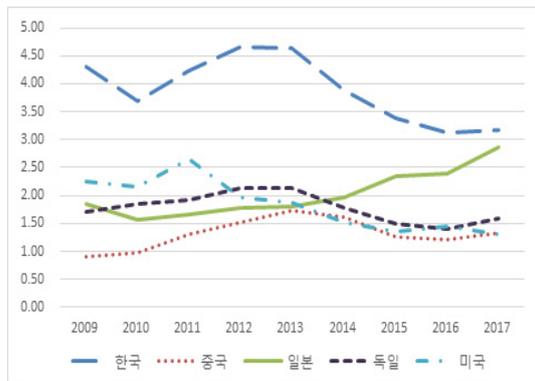
자료 : UM Comtrade

품 조달율을 최근 50%까지 높였으며 벤츠도 점차 확대하는 분위기임. (자료: 신아일보(2018.1.2.) [2018신년특집] '진퇴양난' 韓 자동차산업...“인도 시장 잡아라”)  
 8) HS 8708 품목은 16개 세부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HS 8단위 기준), 양허제외(EXC) 12개, 이행 9년차 기준세율의 50% 관세 적용(SEN) 3개, 이행 7년차 1~5% 관세 적용(RED) 1개로 한·인도 CEPA에도 불구하고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HS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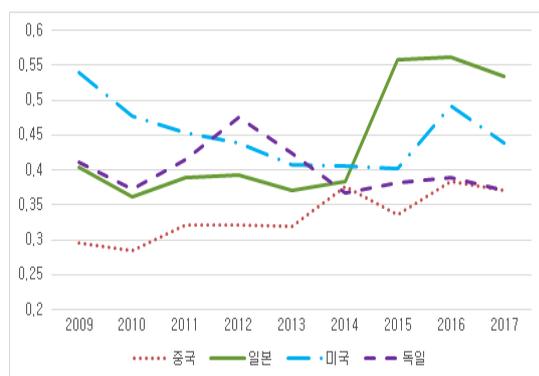
- 한국의 대인도 MCA 지수는 2013년을 기점으로 낮아지는 추세
  - 중국, 독일, 미국의 MCA는 한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의 MCA는 지속 상승하고 있음
- 일본과의 수출경합도는 2014년 급격히 증가
  - 주요 수출 품목인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3904)에 대한 일본의 대인도 수출이 201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양국 간 경합 심화
  - 중국과의 수출경합도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 독일과의 수출 경합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세부 품목의 MCA 지수를 보면, 주요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세를 보임
  - 에틸렌의 중합체(3901), 스티렌의 중합체(3903),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3902), 아크릴의 중합체(3906)은 일·인도 CEPA로 인해 경쟁력이 악화<sup>9)</sup>

<주요국의 플라스틱제품 MCA 추이>



자료 : UM Comtrade

<주요국과의 플라스틱제품 수출경합도 추이>



9) 3901의 경우 일본은 하위 품목 6개 모두 B10 양허품목인 반면, 우리는 미양허(EXC) 3개(39011010, 39011090, 39013000), 민감(REDE) 2개(39019010, 39019090), E-5(39013000) 1개로 구성

<한국의 주요 플라스틱 제품 수출경쟁력 변화 (HS 4단위, 2010 vs 2017)>

품목	세계시장경쟁력(RCA 지수)			인도시장경쟁력(MCA 지수)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3904	1.27	0.93	-	7.63	3.99	-
3901	1.76	2.04	+	2.48	2.12	-
3907	2.81	2.79	-	3.36	3.64	+
3903	5.62	5.80	+	17.79	15.35	-
3902	2.96	3.20	+	5.86	2.83	-
3909	0.54	1.53	+	1.04	5.14	+
3906	1.83	2.72	+	4.60	4.27	-
3926	0.42	0.59	+	0.78	1.95	+
3920	1.15	1.52	+	2.13	2.13	+
3908	1.13	1.19	+	2.69	3.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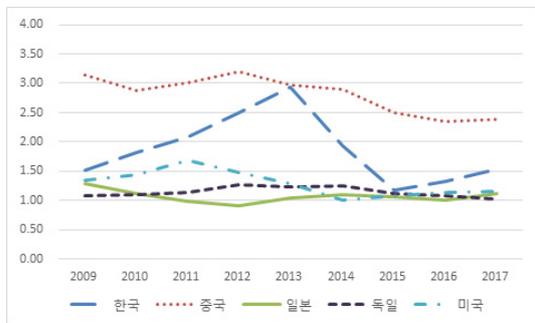
주 :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3904), 에틸렌의 중합체(3901) 아세탈수지 · 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등(3907), 스티렌의 중합체(3903),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3902), 아미노수지 ·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3909), 아크릴의 중합체(3906),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3926),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 쉬트 · 필름 · 박 또는 스트립(3920), 폴리아미드 (3908)

자료 :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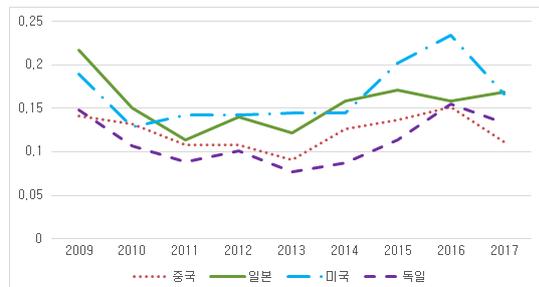
■ 유기화학품(HS 29)

- 유기화학품에 대한 한국의 인도시장 경쟁력은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에 있었으나 2015년 이후 소폭 상승
  - 주요국의 MCA 추이를 보면 중국, 일본은 2009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감소추세를 보임. 미국은 한국과 유사하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하락세에 있던 주요국(중국, 일본, 미국, 독일)과의 수출경합도는 2013년 이후 높아지는 추세이나 2017년 기준 0.15 전후로 높지 않음

<주요국의 유기화학품 MCA 추이>



<주요국과의 유기화학품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 UM Comtrade

- 유기화학품(29) 중 대인도 수출 비중이 가장 큰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2917)은 인도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수출경쟁력 저하
  - 2015년 5월 테레프탈산과 그 염(291736) 품목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 조치 이후 동품목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14년 3.9억 달러에서 2015년 1.24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2016년에는 5천만 달러까지 줄어들

<한국의 주요 유기화학품 수출경쟁력 변화 (HS 4단위, 2010 vs 2017)>

품목	세계시장경쟁력(RCA 지수)			인도시장경쟁력(MCA 지수)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2917	8.26	7.42	-	12.07	11.07	-
2907	2.20	4.06	+	1.68	5.48	+
2929	4.78	5.10	+	3.54	8.31	+
2902	4.25	6.98	+	1.24	1.17	-
2933	0.15	0.24	+	0.09	1.00	+
2926	1.92	2.48	+	0.28	3.95	+
2916	1.02	1.37	+	1.57	1.66	+
2914	0.52	1.41	+	2.78	2.20	-
2901	2.61	4.03	+	1.90	1.46	-
2905	1.03	1.09	+	0.48	0.43	-

주 :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2917), 페놀과 페놀알콜(2907), 기타 질소관능화합물(2929), 환식 탄화수소(2902),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2933), 니트릴관능화합물(292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2916), 케톤 및 퀴논(2914), 비환식탄화수소(2901), 비환식알콜(2905)

자료 : UN Comtrade

<인도의 대한국 및 대세계 유기화학품 비관세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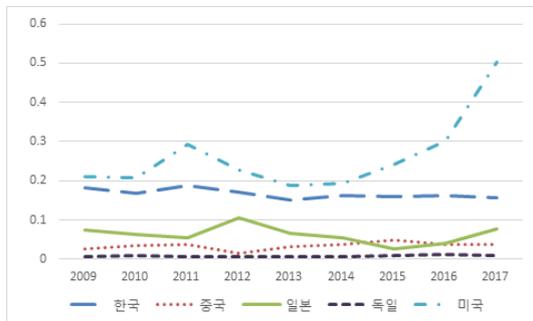
제소일	조치 시작일	조치 종료일	조치	상품 분류	HS코드
2013-04-04	2014-05-21	-	반덤핑	Methylene Chloride	29031200
2013-10-08	2015-05-27	-	반덤핑	Purified Terephthalic Acid	29173600
2014-10-15	2016-03-08	-	반덤핑	Phenol	29071110
2014-11-20	2016-03-29	-	반덤핑	2-Ethyl Hexanol	29051620
2016-10-05		-	반덤핑	Toluene Di-isocyanate (TDI)	292910
2017-06-01		-	반덤핑	Diocetyl phthalate (DOP)	291739

자료 : WTO i-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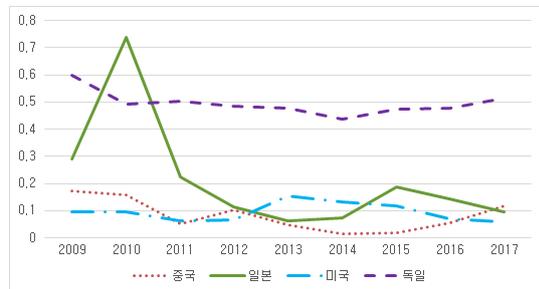
## ■ 광물유와 이들의 물질(HS 27)

-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의 MCA는 모두 1미만으로 나타남
- 한국-독일의 경합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271019)에 90% 집중되어 있으며, 독일 또한 이 품목의 수출이 HS27 전체 수출의 50%에 근접<sup>10)</sup>

<주요국의 광물유와 이들의 물질  
MCA 추이>



<주요국과의 광물유와 이들의 물질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 UM Comtrade

-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2710)의 인도시장경쟁력은 2009년 이후 상승세에 있었으나 2014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7년 소폭 상승
  - 이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2010년 9.7%에서 2017년 16%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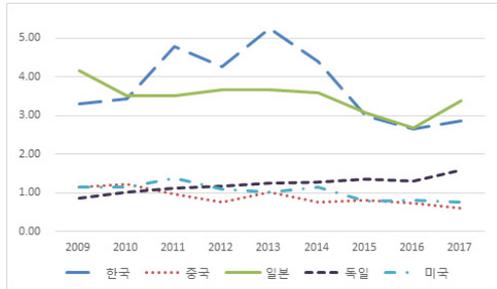
## ■ 고무 및 관련제품(HS 40)

- 인도시장에 대한 고무 및 관련제품 MCA 지수는 2013년 5.2까지 상승했으나 2017년 2.9까지 하락
  -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인도시장에서 일본, 미국, 독일, 중국 순으로 경합관계에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들 국가와의 경합도는 0.1과 0.4사이에서 등락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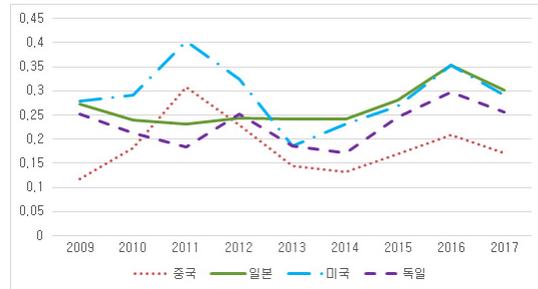
10) 271019는 기타 제품으로 제트 연료유, 등유, 항공기 및 자동차용 기관오일 등을 포함

- 한국은 일본, 미국, 독일, 중국 순으로 경합관계에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들 국가와의 경합도는 0.1과 0.4사이에서 등락을 보임

<주요국의 고무 및 관련제품 MCA 추이>



<주요국과의 고무 및 관련제품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 UM Comtrade

- 인도의 기술규제(TBT)인 타이어 인증 문제가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타이어(401110, 401120)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했을 것으로 추정<sup>11)</sup>

<한국의 주요 고무 및 관련제품 수출경쟁력 변화 (HS 4단위, 2010 vs 2017)>

품목	세계시장경쟁력(RCA 지수)			인도시장경쟁력(MCA 지수)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4002	3.73	3.98	+	8.57	7.70	-
4016	0.36	0.71	+	0.48	1.41	+
4005	0.36	0.68	+	5.39	2.51	-
4009	0.45	0.68	+	0.89	1.84	+
4008	0.35	0.32	+	2.35	3.90	+
4010	0.33	0.33	-	1.88	1.29	-
4011	1.50	1.37	-	0.32	0.23	-

주 :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4002),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4016),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 고무(4005), 관·파이프 및 호스(4009), 판·슈트·스트립·봉 및 형재(4008), 콘베이어용 또는 전 동용의 벨트 및 벨팅(4010), 공기타이어(4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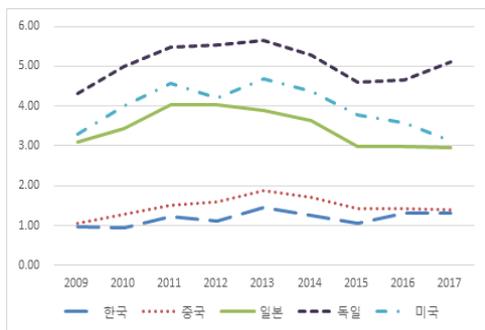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11) 2011년 5월 인도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ISI(Indian Standards Institute) 인증마크를 타이어에 각인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내 타이어 업계의 수출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음. 이에 한국은 일본, EU와 함께 인도의 타이어 인증 규제 관련 사안을 STC로 제기하여 'BIS의 해외 제조업체 인증제도(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 FMCS)의 개정 내용 중 ① 인도 BIS 인증 마크 각인 제품의 인도 외 지역 판매금지 ② 인증 비용 이외에도 생산량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③ 1년 인증 유효기간 폐지 혹은 인증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 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BIS 인증 마크 각인 제품의 인도 외 지역 판매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ISI 마크가 새겨진 타이어를 인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였던 내용을 철회하고 해외 지역 판매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나머지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인도의 규제를 수용·이행하는 상황임.(출처: 이웅, 이정미, 김신주, 장용준(2016),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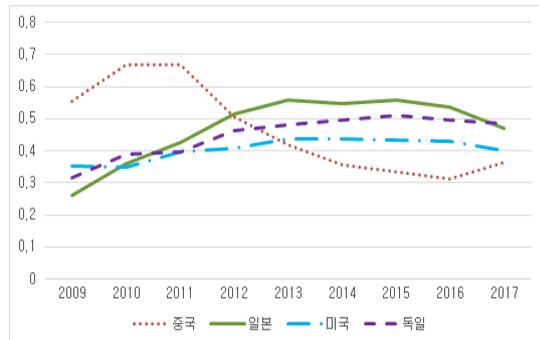
## ■ 정밀기기(HS 90)

- 한국의 대인도 MCA는 점차 상승하고 있는 반면 기존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독일, 미국, 일본의 MCA는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보임
- 한국과 중국의 경합도는 낮아진 반면 독일, 미국, 일본과의 경합도가 상승
  - 저기술 품목에서 고기술 품목으로 수출품목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주요국의 정밀기기 MCA 추이>



<주요국과의 정밀기기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 UM Comtrade

- 정밀기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한국의 주요 품목은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9031),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9018),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9032),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9027) 등임

<한국의 주요 정밀기기 수출경쟁력 변화 (HS 4단위, 2010 vs 2017)>

품목	세계시장경쟁력(RCA 지수)			인도시장경쟁력(MCA 지수)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9031	0.88	1.94	+	0.84	2.68	+
9018	0.36	0.42	+	0.74	1.57	+
9032	0.33	0.69	+	0.51	2.91	+
9027	0.24	0.51	+	0.30	0.95	+
9013	10.09	6.51	-	7.60	2.32	-
9022	0.40	0.76	+	0.42	0.74	+
9021	0.12	0.22	+	0.31	0.68	+
9026	0.15	0.23	+	0.60	1.65	+
9001	3.88	3.62	-	1.30	0.53	-
9029	0.48	0.17	-	1.24	1.79	+

주 :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9031),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9018),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9032),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9027), 액정 디바이스(9013), 방사선 기기(9022), 정형외과용의 기기(9021),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9026), 광섬유와 광섬유다발(9001), 속도계와 회전속도계(9029)

자료 : UN Comtrade

## IV. 수출 애로요인 분석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대인도 수출기업(300개사) 대상으로 수출 애로 설문조사(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관련)를 실시

■ 품목별 수출 애로 요인

품목	외부적요인	내부적요인
기계류(HS84)	과당경쟁(43.1%) 수요감소(19.0%)	현지시장 발굴 한계(27.6%) 기업자체 생산성 하락(25.9%)
전자기기(HS85)	과당경쟁(47.8%) 수요감소(26.1%)	기업자체 생산성 하락(43.5%) 현지시장 발굴 한계(21.7%)
화학(HS29) 플라스틱(HS39)	과당경쟁(50.0%) 환율변동(13.6%)	현지시장 발굴 한계(27.3%) 인도 외 신규수출 시장 발굴(22.7%)
철강(HS72) 철강제품(HS73)	과당경쟁(38.1%) 환율변동(14.3%)	현지시장 발굴 한계(38.1%) 현지생산 증가로 수출 비중감소(23.8%)
자동차부품(HS87) 정밀기기(HS90)	과당경쟁(36.0%) 수요감소(16.0%)	인도 외 신규수출 시장 발굴(32.0%) 현지생산 증가로 수출 비중감소(28.0%)

### 1. 설문조사 개요

■ 본 장에서는 대인도 수출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 애로요인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제시

- 응답기업 중 기계류 분야의 응답이 26.4%(79개)로 가장 많음
  - 자동차 부품 15.7%(47개), 화학공업제품 15.3%(46개), 철강 9.3%(28개), 전자전기 8.3%(25개), 플라스틱 7.7%(23개), 섬유 5.3%(16개), 비철금속 5.0%(15개) 순으로 뒤를 이음
- 기업 규모의 경우, 고용 기준 총 300개 응답기업 중 절반가량인 152개 기업이 고용인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이었으며, 50명 이상~300명 미만 기업이 119개, 나머지는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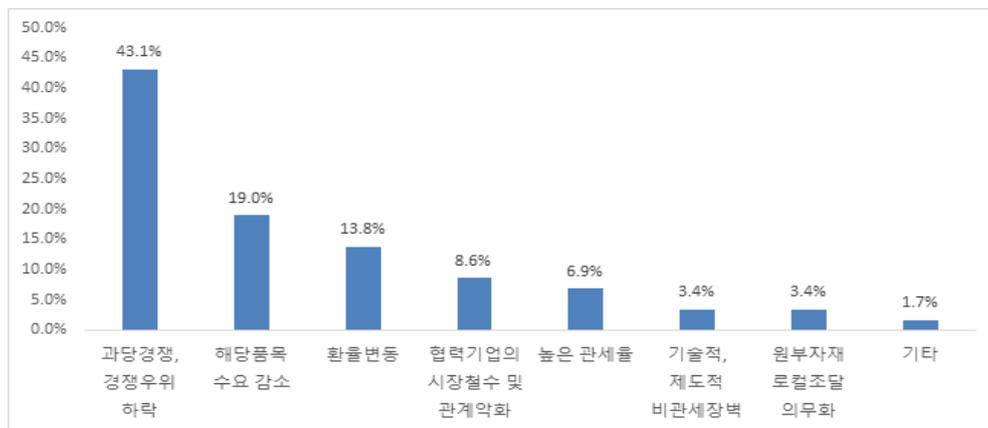
- 응답기업의 대부분인 270개 업체는 순수 수출만 하는 기업으로 조사됨
  - 나머지 30개 기업은 인도 현지에 직접 생산시설 및 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진출(56.7%)했거나, 인도기업과의 합작사 설립(13.3%), 인도 로컬기업 및 인도 진출 한국기업과의 인수합병(16.7%)을 통해 진출
- 응답기업의 대부분인 82.7%는 한국에서 직접 생산해 인도에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과 인도를 제외한 해외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약 17%에 불과
  - 응답기업은 인도와 함께 동남아, 중국, 유럽, 미주, 일본 등에도 수출하고 있는데 동남아의 비중이 75.7%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66%, 유럽 62.3%, 미주 61%, 일본 48%가 뒤를 이음

## 2.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요인

### ■ 기계류(HS 84) 품목

- 대인도 기계류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43.1%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도 시장 내 과당경쟁을 지적
  - 이밖에 해당품목의 수요 감소(19%), 환율변동(13.8%), 협력기업의 시장 철수 및 관계악화(8.6%) 등이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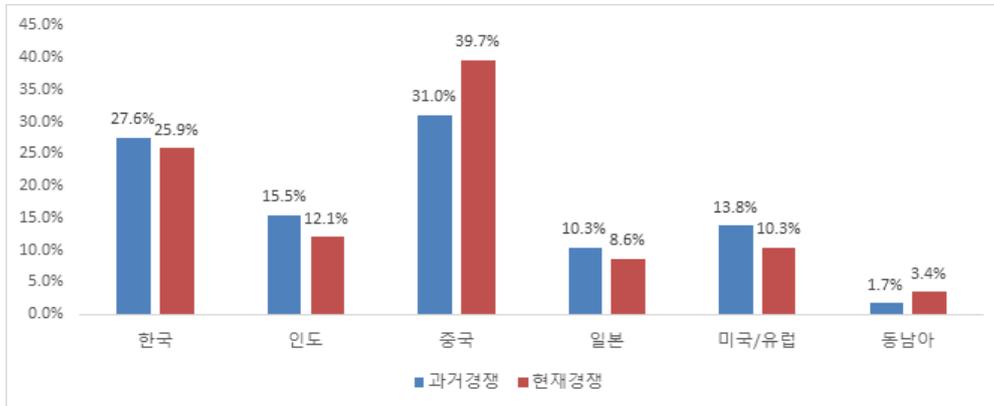
<대인도 기계류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주 : 총 58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 대인도 기계류 수출 기업은 중국(39.7%)을 가장 큰 경쟁 상대로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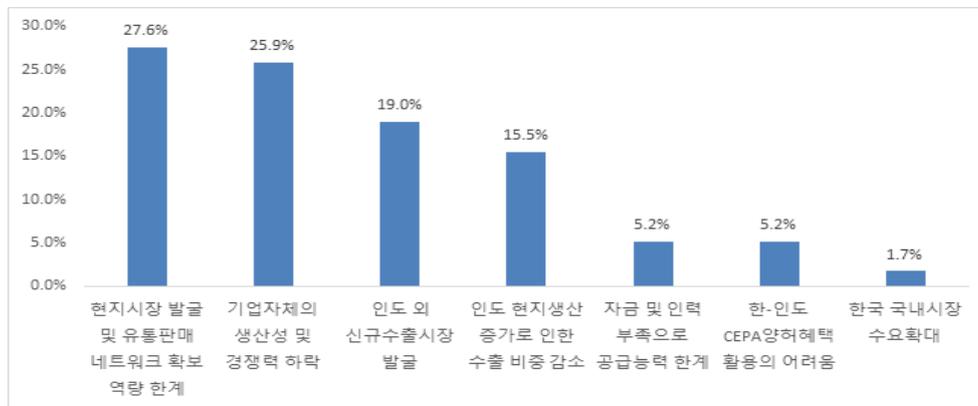
<대인도 기계류 수출 경쟁관계 변화>



주 : 총 58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 대인도 기계류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27.6%가 내부적 요인으로 인도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를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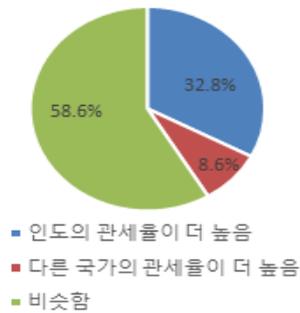
<대인도 기계류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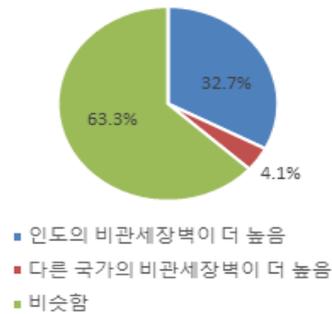
주 : 총 58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 응답기업 중 91.4%는 인도 수입 관세가 다른 국가의 수입관세보다 높거나 비슷하다고 응답
- 비관세의 경우 응답기업 중 96.0%가 인도의 비관세 장벽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
  - 복잡한 통관절차(72.4%)를 대표적인 인도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했으며, 이밖에 기술 및 인증규제 8.6%, 세이프가드 5.2% 등을 지적

<기계류 수입 관세 비교>



<기계류 수입 비관세장벽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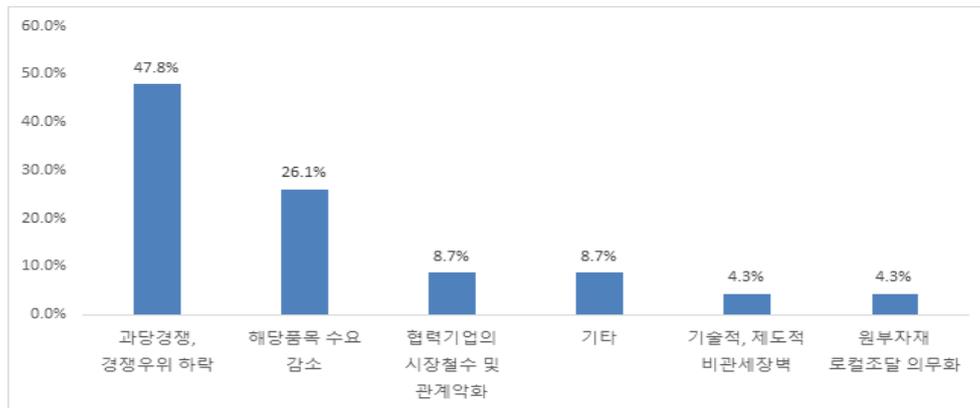


주 : 각각 58개, 49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 ■ 전자기기(HS 85)

- 대인도 전자기기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47.8%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도 시장 내 과당경쟁을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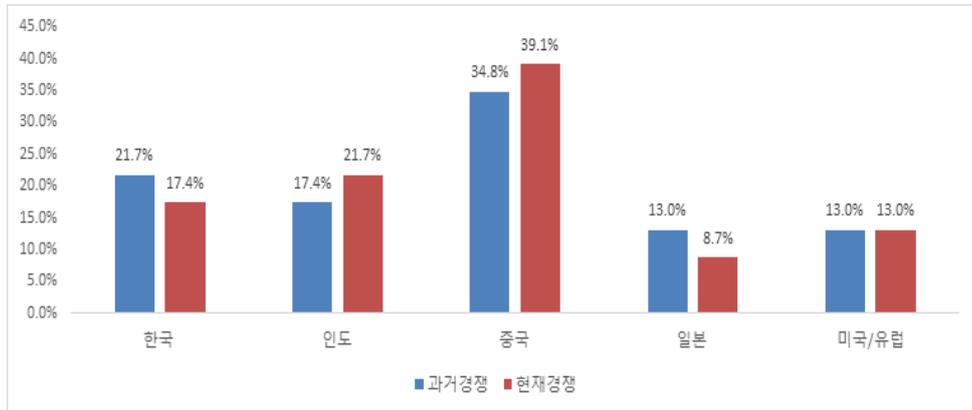
<대인도 전자기기류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주 : 총 23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 우리나라의 대인도 전자기기류 수출 기업들은 인도 시장 내 중국(39.1%)을 가장 큰 경쟁상대로 꼽음
  - HS8544(전선, 케이블 등)와 HS8536(전기회로 및 관련 부품 등 산업용 전자기기)의 경우 비교적 저부가, 저기술집약적 품목으로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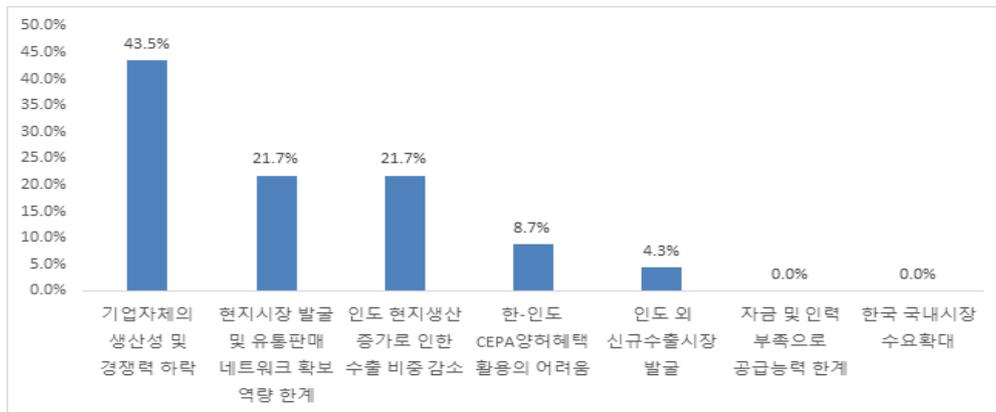
<대인도 전자기기류 수출 경쟁관계 변화>



주 : 각각 23개, 13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 대인도 전자기기류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43.5%가 내부적 요인으로 기업 자체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을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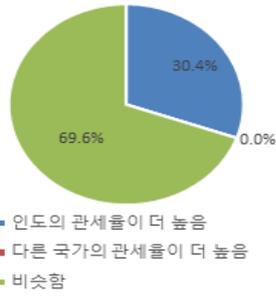
<대인도 전자기기류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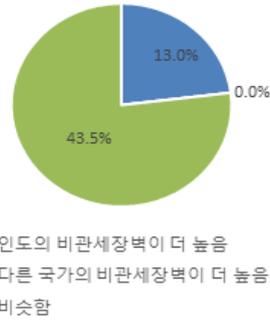
주 : 총 23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 응답기업 중 69.6%는 인도의 관세가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고, 30.4%는 인도가 더 높다고 응답
  - CEPA 체결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관세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무하였는데 이는 여전히 CEPA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낮은 활용도를 의미

<전자기기류 수입 관세비교>



<전자기기류 수입 비관세장벽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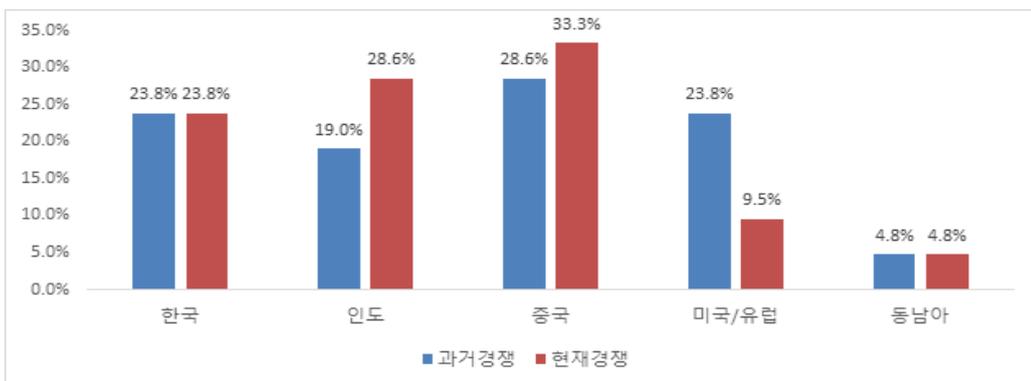


주 : 각각 23개, 13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 ■ 화학(HS 29), 플라스틱(HS 39)

- 대인도 화학/플라스틱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50.0%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도 시장 내 과당경쟁을 지적
- 화학/플라스틱 수출 기업은 인도 시장 내 중국(33.3%)을 가장 큰 경쟁상대로 꼽았으며, 인도 로컬기업이 28.6%로 뒤를 이음
- 특히 HS3920대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응답기업 중 인도 로컬기업과의 경쟁을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인도 로컬기업이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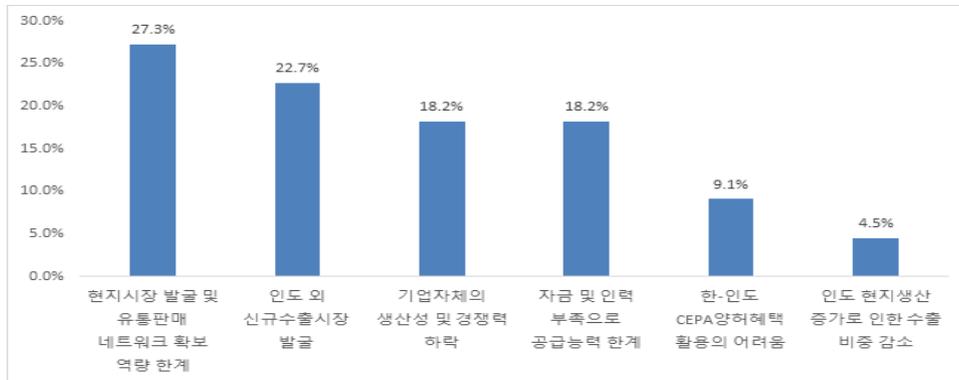
<대인도 화학/플라스틱류 수출 경쟁관계 변화>



주 : 21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 대인도 화학/플라스틱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27.3%가 내부적 요인으로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를 지적

<대인도 화학, 플라스틱류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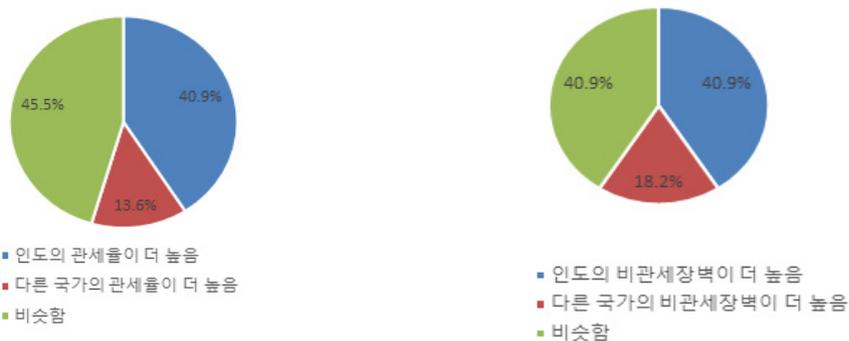


주 : 총 21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 응답기업 중 45.5%는 인도의 관세가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고, 40.9%는 인도가 더 높다고 응답

- 인도의 관세가 높다고 응답한 기업 중 HS3910~ HS3920대 품목이 비교적 많았으며, 응답기업의 수출 품목을 6단위로 세분화해 살펴본 결과 상당수가 CEPA 미양허, 또는 5~6%대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sup>12)</sup>

<화학/플라스틱류 수입 관세비교>      <화학/플라스틱류 수입 비관세장벽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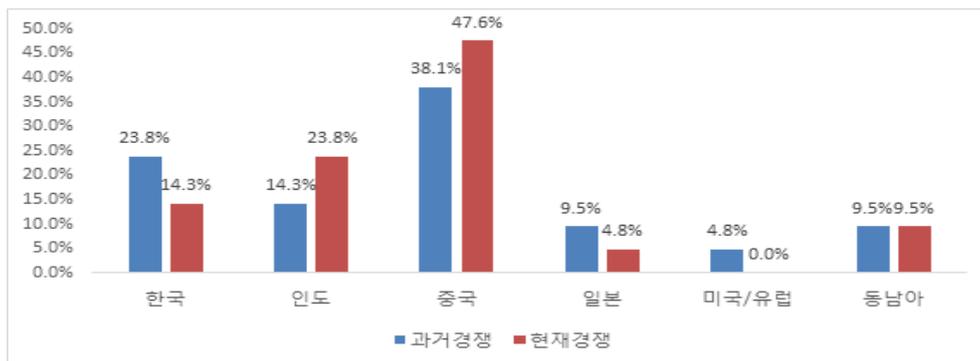
주 : 22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12) 미양허 품목은 HS290532, HS290711, HS390410, HS390720, HS391990, HS392061, HS392190, HS392 329, HS400921이고, 관세 5%~6% 적용 품목은 HS291612, HS291737, HS291732, HS391793 임. 이중 HS390410는 HS4단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 플라스틱 품목 수출 중 비중이 가장 크지만, 최근 증가율 기준으로는 경쟁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류됨

## ■ 철강(HS 72), 철강제품(HS 73)

- 대인도 철강/철강제품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38.1%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도 시장 내 과당경쟁을 지적했으며, 환율변동(14.3%), 높은 관세율(9.5%) 등이 뒤를 이음
  - 수출품목이 HS7204~7223(철강선, 철강관 등)에 해당하는 응답기업의 경우 시장 내 과당경쟁 보다는 환율, 관세율, 비관세장벽 등 다른 요인에 대한 지적이 더 많았음
  - 반면, 수출품목이 HS7304~7323(철강관, 철강파이프, 스테인리스 제품, 주방용 주철 제품)에 해당하는 응답기업의 경우 다른 요인 보다는 과당 경쟁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
- HS72 품목의 경우 다양한 경쟁상대를 지적한 반면, 높은 비율로 과당경쟁을 지적한 HS73(7307, 7312, 7318, 7323) 품목 수출기업의 경우 중국을 지적한 응답이 훨씬 많음
  - 인도 시장 내에서, 철강보다는 철강제품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

<대인도 철강/철강제품류 수출 경쟁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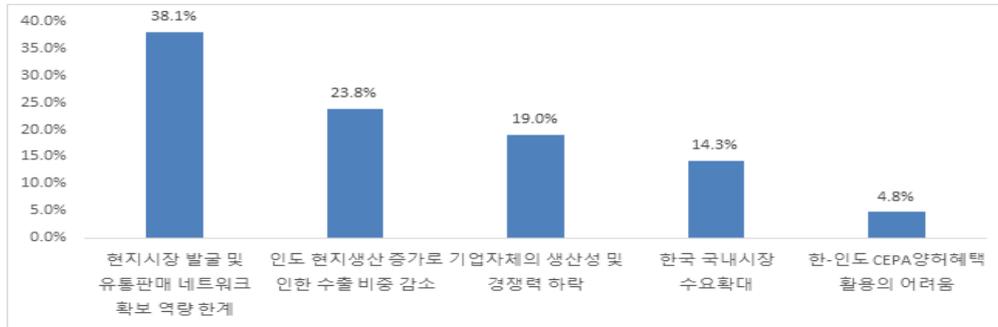


주 : 21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 대인도 철강, 철강제품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38.1%가 내부적 요인으로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를 지적

- 현지화 23.8%,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19%, 한국시장 수요확대 14.3%가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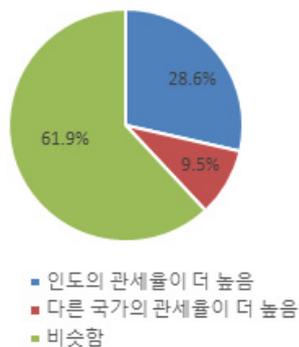
<대인도 철강/철강제품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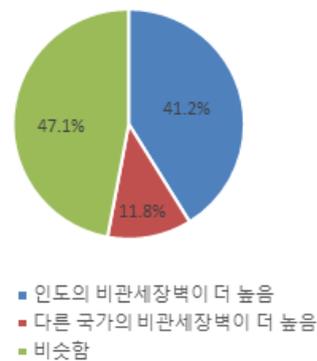
주 : 총 21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 철강/철강제품류의 경우 대부분 CEPA 양허 대상인 만큼, 관세보다는 비관세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됨
  - 응답기업 중 관세장벽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28.6%, 비관세장벽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41.2%
  - 철강/철강제품류의 수출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반덤핑규제(40%), 기술 및 인증규제(15%) 등을 비관세장벽으로 지적

<철강/철강제품류 수입 관세비교>



<철강/철강제품류 수입 비관세장벽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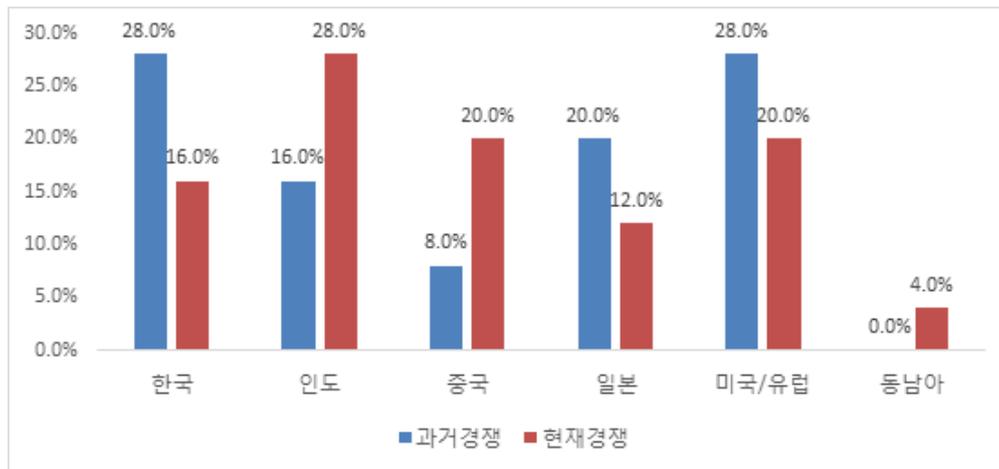


주 : 21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 ■ 자동차부품(HS 87), 정밀기기(HS 90)

- 대인도 자동차부품/정밀기계류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36%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도 시장 내 과당경쟁을 지적
  - 자동차부품의 경우 경쟁 열위에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았고, 정밀기기 분야는 과당경쟁을 우려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아 차이를 보임<sup>13)</sup>
- 우리나라의 대인도 자동차부품/정밀기기 수출 기업은 인도 로컬기업을 가장 큰 경쟁상대로 꼽음

<대인도 자동차부품/정밀기기 수출 경쟁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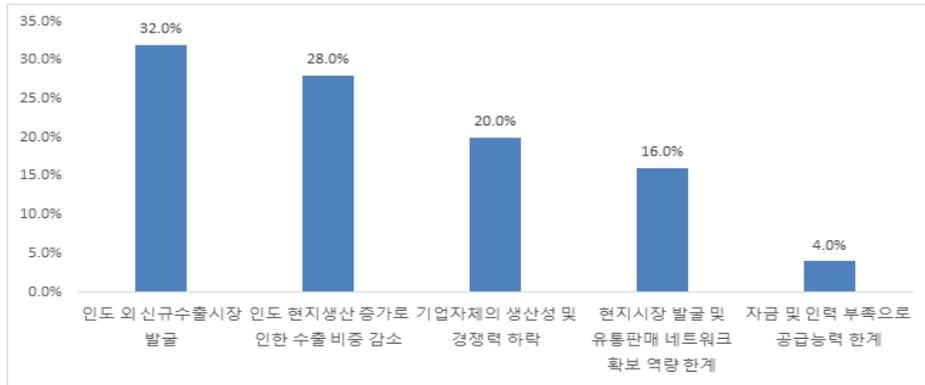
주 : 25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 대인도 자동차부품, 정밀기기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32%가 내부적 요인으로 인도 외 신규수출시장 발굴을 지적
  - 정밀기기 품목의 경우 응답 기업이 수출품목 모두 CEPA양허 대상임에도
- 응답기업 중 44%는 인도의 관세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다른 품목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13)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50% 이상이 경쟁열위에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정밀기계류 수출기업은 79%가 경쟁우위에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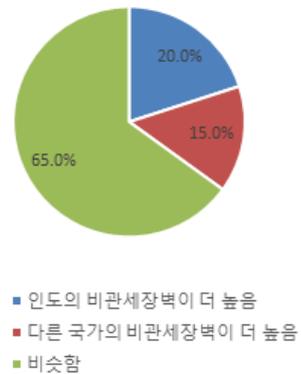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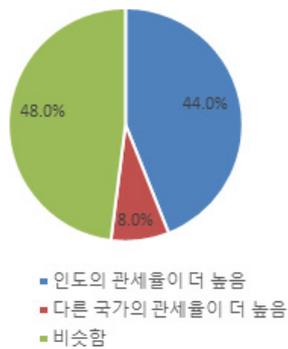
- 정밀기기 품목의 경우 응답 기업이 수출품목 모두 CEPA양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양허대상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CEP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인도 자동차부품/정밀기기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주 : 총 25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자동차부품/정밀기기 수입 관세 비교> <자동차부품/정밀기기 수입 비관세장벽 비교>



주 : 25개 기업 응답  
 자료 : 무역협회, KIEP 공동 설문조사 결과

## V.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및 결론

- 본 연구는 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지수분석, 설문 및 현지조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우리 수출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을 품목별로 분석
  - 대인도 수출은 미진하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품목들은 합성 고무 제품, 금속가공 기계, 전동기·발전기, 자동차 부품, 가구 및 부분품 등으로 향후 대인도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유망품목군의 대인도 수출 애로요인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기계·전자기기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시장수요에 대한 대응 한계, 플라스틱·자동차부품은 한-인도 CEPA 활용의 어려움, 철강·유기 화합품·고무 등은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음
- (기계·전자기기) 인도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
  - 인도는 산업고도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메이크인 인디아')은 물론, 디지털 경제화의 진전을 위해 관련 정책('디지털 인디아')을 강화
    - 산업화와 디지털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중심의 자본재 또는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가격 측면에서 중국에 경쟁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만큼, 기술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품목을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
  - 인도의 소득 수준 역시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의료기기, 정밀계측기기 등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요하는 제품 중심으로 높아진 인도의 구매력에 대응해야 함
    - 중산층 및 청년층 증가, 서구화된 생활 패턴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건강 및 미용 제품, 퍼스널 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함

## ■ (플라스틱 · 자동차부품) CEP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정부는 CEP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인도정부와 CEPA 개선을 위한 협의와 노력을 지속해야 함
  - 플라스틱(HS39), 자동차 부품(HS87)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미양허 대상 품목이 다수 존재하고, 이는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최근에는 인도가 자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CEPA 미양허 주요품목의 상당수가 관세 장벽에 직접적으로 노출<sup>14)</sup>
- 대인도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CEPA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 한국무역협회의 FTA종합지원센터, 인도 뉴델리에 개소된 CEPA활용지원센터, 인도투자청의 코리아플러스<sup>15)</sup> 등이 운영 중인 만큼, 지원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의 CEPA 활용도를 높여야 함
  - 기업은 CEPA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거나 기업 내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적인 수출역량을 강화해야 함

## ■ (철강 · 유기 화합품 · 고무) 양국 간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지속 적인 협의 필요

- 인도 중앙정부와 제도적 기술적 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통관절차에서의 영향력은 주 당국이 더 크기 때문에 주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sup>16)</sup>
- 2018년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무역구제 협력회의의 정례화’를 상호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화채널로 발전시켜야 함

14) 2018년 2월 인도정부는 일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를 7.5%, 또는 10%에서 각각 15%로 인상함

15) 코리아플러스는 2016년 인도 투자청 (Invest India) 내에 설치된 한국기업 전담 투자상담 창구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16) 주 통관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정부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타밀나두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세관 공무원들의 비효율적인 통관심사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임(2018년 10월 첸나이 간담회 내용 인용).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밀나두 주정부와 코트라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 대표들 간 협회가 진행되나 있지만, 타밀나두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사례도 있음

## 〈참고자료〉

### ■ 문헌자료

- 모수원, 정홍영, 이광배,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부산항의 수출경쟁력 분석’,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2015
- 박광순, 이진면, 전해진,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전략적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2012
- 신현수, 이원복, ‘한중일 제조업 경쟁력의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3
- 이용, 송영철, 이정미,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부문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이용, 이정미, 김신주, 장용준,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최낙균, 강준구, 이홍식, 한치록,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 17-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최윤정, ‘최근 한국의 對인도 수출확대의 배경과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4
- KOTRA, ‘한-인도 CEPA 체결과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유망품목’, 2006

### ■ 통계자료

- WITS <https://wits.worldbank.org/>
-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 한국무역협회 DB <http://stat.kita.net/>
- WDI <https://datacatalog.worldbank.org/dataset/world-development-indicators>
- IMF WEO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

### ■ 언론기사

- 신아일보, ‘진퇴양난’ 韓 자동차산업...“인도 시장 잡아라”, 2018. 1. 2.

**품목별 對인도  
수출경쟁력 및 수출애로요인 분석**

Trade Focus 2019년 5호

발행인 | 김영주

편집인 | 신승관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9년 3월 4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